

정부는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중입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5.6.26. 아시아경제 등은 “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을 사실상 폐기하였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재정부 입장>

- 정부는 경기 대응이라는 재정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 중입니다.

- 다만, 현재는 재정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국면으로,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

- 이에 금번 추경안을 추진하면서 지출구조조정 노력 등을 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$\Delta 3\%$ 이내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.

* 최근 4분기 연속 0% 내외 성장 등 경기부진 심화, 지난 3년간 및 금년 1차 추경시에도 국회에서 논의중인 준칙안이 정한 기준을 실질적으로 지키지 못함

· 경제성장률(전기비, %): ('24.1Q)1.2 ('2Q) $\Delta 0.2$ ('3Q)0.1 ('4Q)0.1 ('25.1Q) $\Delta 0.2$

· 최근 관리재정수지(GDP%): ('22^{결산}) $\Delta 5.0$ ('23^{결산}) $\Delta 3.6$ ('24^{결산}) $\Delta 4.1$ ('25^{1차추경}) $\Delta 3.3$

- 현재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, “폐기”라는 표현은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	책임자	과 장	황희정 (044-215-57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영 (jeanghim@korea.kr)

